

美, 224兆 中수입품에 10% 관세... 무역전쟁 점입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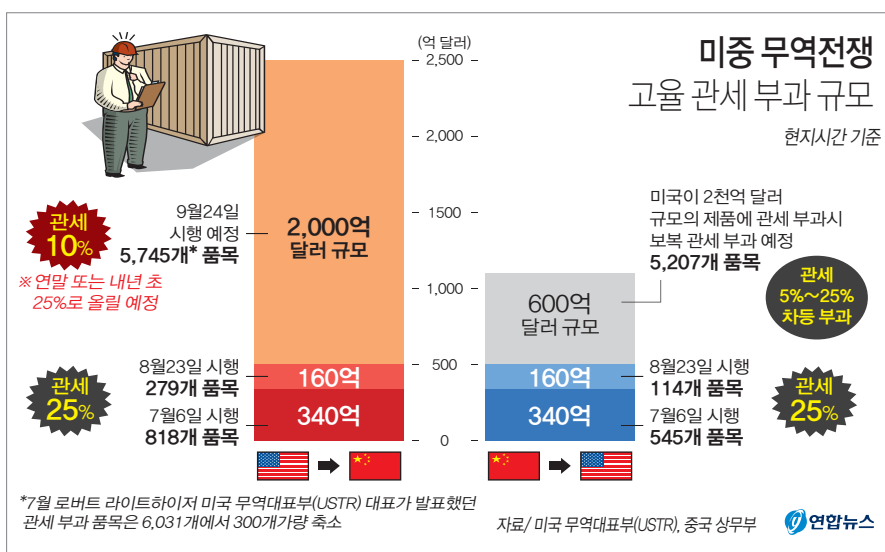
24일부터 부과... 연말 25%로 ↑
소비재 포함 품목 6000개 육박

중국 “관세 부과시 협상 안해”
美·中 무역협상 회담 ‘불투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오는 24일 (현지시간)부터 2000억달러(약 224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로이터·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성명을 통해 중국산 제품 2천억달러어치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관세 부과 결정 배경에 대해 “우리는 수개월 간 불공정한 (무역)행태를 바꾸고 미국 기업들을 공정하고 상호적으로 대하도록 촉구해왔지



만, 중국은 변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24일부터 10% 관세를 부과한 이후 이들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연말 또는 내년 1월부터 25%로 올릴 예정이다.

트럼프 정부는 현재 1천97개 품목 500

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2천억달러어치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정하고 이달 6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7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발표했던 관세

부과 품목은 6천31개였으나 이번 최종 발표에서는 300개가량 줄었다.

다만 전체 2천억달러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언론에 이번 발표 내용을 설명한 미국 정부 고위 관리자는 말했다.

미국의 이번 관세 결정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류허(劉鶴) 중국 경제담당 부총리가 오는 27~28일 워싱턴DC에서 무역협상에 나서기로 예정됐지만,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결정으로 회담 전망은 불투명해졌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의 협상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 관리자는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경제 성장과 발전을 억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중국의 구조적 변화를 원하지만, 베이징이 이에 심각하게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 2000억달러 제

품에 대한 관세 부과시 협상을 거부할 방침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USTR에 2000억달러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당초 계획한 10%에서 25%로 올릴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나 10%에서 25%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는 2000억달러 제품에는 미국 소비자에게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생활용품과 소비재가 대거 포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에 따라 미국이 관세를 이미 부과했거나 앞으로 부과할 대상인 2500억달러 규모는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규모 5055억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으로부터 만족스러운 무역협상을 끌어내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세종=최신용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환율전쟁으로 번지면 전세계 타격

원·달러 환율 1,130원선까지 올라
관세 규모 커지면 시장 변동성 ↑

미국이 오는 24일부터 2000억달러(224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매기기로 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 심화 우려에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장중 1130원까지 올랐다.

시장은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율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거론한 만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되면 최근 5차례 연속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한국에 미칠 타격은 상당하다.

1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4원 내린 1123.2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전일 대비 2.4원 오른 1129.0원에 거래를 시작한 후 장중 1130.2원까지 올랐다(원화 가치 하락).

이는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앞두고도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추가 부과하기로 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예상에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일단 관세율을 10%로 적용한 뒤 내년 1월부터 25%로 상향할 방침도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이미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6일 미국의 대(對)중 340억달러 관세 발표에 대해 중국이 동일한 규모의 보복 관세로 맞대응에 나섰는데, 미국이 이에 대한 재보복 방침 차원에서 추가 공세에 나서며 관세범위가 확대된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크다. 우선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면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수출도 함께 줄어들 수 있다. 환율조작국 지정 시 원화 가치도 중국 위안화에 동조화돼 절상될 수 있다. 이 경우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은 악화된다.

국제금융센터(KCIF)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중 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체 관세 부과 규모가 5000억달러 이상으로 확대 시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관세 부과 이후



에 10월 중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환율전쟁에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환율 문제를 끊임없이 거론해왔다. 대선 후보 때부터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조작한다는 비난을 서슴지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30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도 “중국이 경제성장 둔화를 만회하려고 위안화를 절하했다”면서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에 대해 “아주 강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매년 4, 10월 발표하는 환율 보고서를 통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 3% 초과, 환율시장 일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3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한다.

3가지 기준 중 2가지 항목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한국은 올해 4월까지 5차례 연속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최악의 경우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한국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크다. 우선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면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수출도 함께 줄어들 수 있다. 환율조작국 지정 시 원화 가치도 중국 위안화에 동조화돼 절상될 수 있다. 이 경우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은 악화된다.

국제금융센터(KCIF)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중 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체 관세 부과 규모가 5000억달러 이상으로 확대 시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

韓 경제, ‘샌드위치 신세’ 전략 우려

“韓 경제성장률 0.16%p 하락”

중국과 수출 경쟁도 높은
車부품·조선엔 기회 될 수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2000억달러(5745개 품목)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라고 지시하면서 한국경제도 바람앞에 등불 신세가 됐다.

시장에서 가장 우려한 것은 ‘스노우볼 이펙트(Snowball Effect·눈덩이 효과)’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가 자동차 산업 전체를 겨냥하면서 G2 갈등을 넘어 ‘미국대비 미국(US vs. Non-US)’ 구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한국경제가 샌드위치 신세로 전략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반면 중국과 수출 경쟁도가 높았던 업종은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무역전쟁·韓경제 샌드위치 전략 우려

1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는 “미중 무역전쟁 발발시 2020년까지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0.7%포인트(미국 1%포인트, 중국 1.3%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이터는 “미국과 중국간 관세부과 규모가 1000억 달러 늘어날 경우 전세계 교역이 0.5% 감소하고, 기업 투자가 위축돼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0.1% 낮아질 것”이라고 추산했다.

시장에서는 한국이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이 크다. 미중 경기가 위축되면 양국의 한국산 제품 수입이 줄 수 있다.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완제품 생산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중간재 수출도 감소할 수 있다.

씨티그룹은 “미국이 대중 관세 부과를 단행하면 중국(-0.54%포인트) 및 세계 경제성장률(-0.20%포인트)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성장률도 0.16%포인트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의 성장률도 0.5%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지난 11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는 트럼프 대통령. /연합뉴스

세계경제 둔화는 한국경제에 치명적이다.

미국 컨퍼런스 보드에 따르면 부가가치 기준 수출량으로 따졌을 때 한국의 중국 경제의존도는 일본, 유럽연합(EU), 미국 등 주요국 가운데 가장 컸다. 지난 2016년 국제통화기금(IMF)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의 GDP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한다면 한국의 성장률은 0.50%포인트(일본 -0.25%포인트, 세계경제 -0.2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보호무역 조치에 따른 직·간접 수출 차질 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 수출의 0.5%(명목 GDP의 0.2%)로 추정된다. 또 추세가 지속될 때 수출차질은 2017~2020년 중 수출의 0.8% 수준까지 확대된다. 무역규제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수출이 약 0.41%포인트 하락한다. 이는 반덤핑, 상계관세 등 조사 개시 직후부터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출이 2~3년간 하락하는 영향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글로벌 교역 둔화로 중간재 수출이 감소하는 간접 차질 규모로 수출의 약 0.05% 감소한다.

◆자동차부품, IT부품, 조선 등 기회요인

중국과 수출 경쟁도가 높았던 업종에 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의하면 한중 수출 경쟁도 지수는 2000년 0.331에서 2016년 0.39로 상승하면서 20년 내 최대 수준이다. 8대 주력 품목(석유화학, 철강, 철강제품, 기계, IT, 자동차, 조선, 정밀기기)의 수출 경쟁도 지수도 2016년 기준 0.47

까지 올라왔다.

프랭클린템플턴의 신흥국투자담당이었던 마크 모비우스는 인도와 한국이 미국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는 중국과 멕시코의 빈자리를 채우며 반사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7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제조업이 강한 인도나 기술 산업이 강한 한국 등도 보호무역주의 기조에서 유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의 수출 경쟁도가 높았던 품목은 차체 부품, 운전대, 클러치, 타이어 등 총 수출액 92억달러 규모다.

한국투자증권 박소연 연구원은 “이번에 추가로 관세가 부과될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대상 품목 중에는 자동차 부품(HS 8708)이 대거 포함돼 있어 업계에서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 인해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한다면 한국 부품회사들에겐 공급선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실제로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이 현지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및 글로벌 부품사 담당자들과 직접 인터뷰한 결과, 대부분의 완성차 OEM 및 1차공급사(Tier 1) 업체들은 무역제제가 장기화되면 중국산 자동차 부품 소싱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외에도 석유화학, 정밀기기, 조선, 철강, IT 등은 0.5 이상의 높은 경쟁도가 유지하고 있다.

/김호준 기자 kmh@